

다니엘서 - 열세 번째

후일의 비밀

Jeff Pippenger

2023-12-08

다니엘 2장은 요한계시록 14장의 둘째 천사를 상징한다. 그러므로 그것은 세 가지 시험 중 둘째를 상징하는데, 그 시험들은 음식에 관한 시험, 이어지는 시각적 시험,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금석 시험으로 제시된다. 이 세 가지 시험은 예언적 이정표이기도 하며, 요한계시록 14장의 첫째 천사의 메시지 속에도 존재한다. 요한계시록 14장의 첫째 천사와 마찬가지로, 다니엘 1장에도 그 세 가지 시험이 모두 존재한다.

둘째 시험, 곧 둘째 천사의 기별은 첫째 시험의 끝에서 시작된다. 제2장은 제1장 다음에 이어진다. 둘째 시험이 끝나는 즉시 셋째 시험이 시작된다. 둘째 시험이 나타내는 기간은 여호야김이 정복당한 때에 시작하여 고레스의 칙령으로 끝나는 다니엘의 포로기 70년으로 상징되었다. 그 칠십 년의 끝이 가까워지자 다니엘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 그 끝이 곧 이르렀음을 깨달았다.

메대 사람의 씨요 아하수에로의 아들인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의 왕으로 세움을 받은 첫해에, 그의 치세 첫해에 나 다니엘은 책들을 통해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칠십 년에 마치리라 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다. 다니엘 9:1, 2.

다니엘은 포로 생활 70년의 상징적 의미를 깨닫는 말세의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며, 그 깨달음은 그 상징적 70년이 끝나기 직전에 일어난다. 하나님의 백성은 70년 포로기를 오히려 이해해 왔지만, 다니엘이 대표하는 것은 그 70년이 2001년 9월 11일부터 일요일 법령까지의 예언적 기간을 상징한다는 이해이다. 다니엘에게 그 해들은 고레스의 칙령으로 끝났는데, 그것은 말세에 미국의 일요일 법령을 상징한다.

일요일 법령 직전에 하나님의 백성은 상징적인 칠십 년으로 표현된 예언적 이해로 깨어난다. 그 상징적인 해들은 여호야김으로부터 시작되었는데, 그는 2001년 9월 11일을 상징한다. 그때 셋째 화의 이슬람이 도래함과 함께 요한계시록 18장의 힘센 천사가 내려와 바벨론의 몰락을 선포하였다. 바벨론의 몰락은 둘째 천사의 기별을 상징하며, 2001년 9월 11일에 천사의 손에 있던 감추어진 책을 먹은 자들을 위한 둘째 시험 기간이 시작되었다. 상징적인 칠십 년으로 표상된 그 기간은 일요일 법령에 이르기까지 계속된다.

끝이 가까워질 때, 다리오 왕 원년의 다니엘이 보여 주듯, 하나님의 백성은 짐승의 우상의 시험에 깨어나게 된다. 그들은 이전에도 짐승의 우상의 시험과 관련된 일부 진리들을 이해해 왔지만, 둘째 천사의 예언적 기간의 끝이 오기 직전에 그들이 깨닫게 되는 그 부분은 어둠 속에 감추어져 있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연구하다가 칠십 년의 의미를 깨달았을 때 그는 기도로 이끌렸다. 이는 그가 느부갓네살이 본 형상의 꿈과 관련하여 목숨이 걸린 위협을 자각했을 때 기도로 이끌렸던 것과 마찬가지로였다. 다니엘서 9장에서, 다니엘서 2장에서처럼, 다니엘이 기도할 때 그는 예언의 빛을 받았다.

내가 기도 중에 말하고 있을 때, 처음에 환상 가운데서 보았던 그 사람 가브리엘이 급히 날아와 저녁 제사를 드릴 즈음에 내게 와서 나를 만졌다. 그는 내게 깨우쳐 주며 말하였다. '다니엘아, 이제 내가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나왔다.' 다니엘 9:21, 22.

다니엘이 기도할 때 그에게 주어진 "지혜와 총명"은 2장에 나오는 그의 기도와 일치한다.

그때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가서 그 일을 그의 동무들인 하나냐, 미사엘, 아사라에게 알리고, 이 비밀에 관하여 하늘의 하나님께 긍휼을 구해 달라고 하였으니, 이는 다니엘과 그의 동무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멸망하지 않게 하려 함이었다. 그리하여 그 비밀이 밤의 환상 중에 다니엘에게 나타났고, 다니엘은 하늘의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다니엘 2:17-19.

한 줄 한 줄 대조해 보면, 다니엘의 두 기도는 같은 기도다. 둘 다 2001년 9월 11일과 머지않아 다가오는 일요일 법령 사이에 전개되는, 둘째 천사의 눈에 보이는 시험을 상징적으로 대표하는 역사 속에서 드러졌다. 느부갓네살의 임박한 죽음의 위협과, 예레미야의 칠십 년 및 모세의 '일곱 번'에 대한 맹세라는 예언적 지식을 가지고, 다니엘은 레위기 26장의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께 성경 예언의 최종적 비밀을 그에게 드러내 주시기를 간구한다. 그 비밀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부르는 것이다.

아홉째 장에서 다니엘은 두 왕국의 전환기에 서 있다. 바벨론은 막 메대와 페르시아에 의해 함락되었는데, 이는 다리오의 첫해이기 때문이다. 이로써 말세의 하나님의 백성은 첫째 천사의 운동과 또한 셋째 천사의 운동으로 표시된 그 전환점에 놓이게 된다.

밀러주의자들의 필라델피아 운동은 1856년에 라오디게아 상태로 전환되었고, 퓨처 포 아메리카의 라오디게아 운동은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오는 거리에 죽은 채로 있는 삼일 반이 끝날 때 필라델피아 운동으로 전환된다. 1856년부터 1863년까지 밀러주의자들의 필라델피아 운동이 통과하지 못한 시험은 "일곱 때" 교리와 관련된 것이었다.

Future for America의 라오디게아 운동에 대한 시험은 그들이 자신의 흠어진 상태를 인식해야 하는 필요성과, 이어서 레위기 26장의 기도와 경험 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다니엘은 바벨론과 메대-바사 제국 사이의 전환기에 있었고, 고레스의 칙령으로 표시되는 칠십 년의 기간이 끝나기 직전이었다. 그 칠십 년은 다니엘의 기도의 배경이며, 그 칠십 년은 모세의 '일곱 때'를 상징한다. 다니엘의 두 기도는 첫째 천사의 운동에서, 그리고 셋째 천사의 운동에서 '일곱 때'로 표시되는 전환 시기와 일치한다.

다니엘에게 드러난 '비밀'은 느부갓네살의 형상에 대한 계시이다. 말세에 느부갓네살의 형상에 관한 '비밀'은 그것이 네 개의 왕국이 아니라 여덟 개의 왕국을 대표한다는 것이다. '여덟째는 일곱 중에 속한다'라는 카테고리의 이전 글들에서 이 진리가 이미 제시되었다. 그 비밀 속에는 일곱 중에 속한 여덟째가 도래하는 전환 시점에 대한 계시가 포함되어 있다. 느부갓네살의 형상에 관한 '비밀'은 진정한 개신교의 뿔과 공화주의의 뿔의 부활에 대한 확증이다. 그 두 부활은 각각의 뿔이 여덟째이지만 일곱 중에 속해 있음을 드러낸다; 그리고 두 뿔 모두에서 여섯째에서 여덟째로의 전환은 모세의 '일곱 때'와 관련된 시험이라는 예언적 맥락 속에서 일어난다. 그 전환은 다니엘서에 나타난 바와 같이, 미국의 일요일법령을 상징하는 고레스의 칙령 직전에 일어난다. 그런 다음 일요일법령 때에, 빠른 전개 속에서, 교황권도 다니엘서 2장의 느부갓네살의 형상으로

나타난 바와 같은 예언적 전환을 거치면서, 일곱 중에 속한 여덟째 머리가 됨에 따라 그 치명적인 상처가 치유된다.

그러므로 다니엘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죽이라고 왕이 임명한 아리옥에게 들어가 그에게 이르되,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죽이지 마십시오. 저를 왕 앞에 데려가 주십시오. 그리하면 내가 왕께 그 해석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에 아리옥이 급히 다니엘을 왕 앞에 데리고 들어가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왕께 그 해석을 알려 드릴 유다 포로 가운데 한 사람을 제가 찾았습니다.” 왕이 벨드사살이라 하는 다니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내가 본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려 줄 수 있느냐?” 다니엘 2:24-26.

다니엘이 그 비밀을 받은 뒤에는 그의 두 이름이 모두 언급되는데, 이를 통해 그가 언약 백성을 대표함이 드러난다. 그 언약 백성은 마지막 때에 막 십사만 사천의 빌라델비아 운동으로 들어선 자들이다. 그는 “비밀”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아무도 죽임당하지 않게 해 달라고 요청함으로써 하나님의 종의 성품을 드러낸다. 그의 성품은 다니엘을 찾아냈다는 공로를 왕에게 인정받으려는 느부갓네살의 신하 아리옥과 대조된다. 이어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의 질문에 질문으로 답함으로써 참된 예언적 계시와 바벨론 지혜자들의 그것을 구별해 보이며, 또 아리옥과는 달리 그 “비밀”을 이해한 것을 자기 선전의 수단으로 삼지 않고 오히려 하늘의 하나님을 높인다.

다니엘이 왕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께서 요구하신 그 비밀은 지혜자들이나 점성가들이나 술사들이나 점술가들이 왕께 알려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에는 비밀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 계시며, 그분이 후일에 있을 일을 느부갓네살 왕께 알려 주십니다. 왕의 꿈과 왕께서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보신 환상은 이렇습니다. 다니엘서 2:27, 28.

다니엘은 ‘비밀’을 소개하면서, 그것이 후일에 될 일을 설명하는 ‘비밀’임을 먼저 밝힌다. 일곱 우렛소리의 숨겨진 역사의 비밀은 후일에 무엇이 일어날지를 밝혀 준다. 느부갓네살의 형상은 은혜의 시간이 끝나기 직전에 봉인이 풀리는 말일의 비밀의 한 요소이다. 그것은 다리오 원년에 다니엘에 의해 표상된 바와 같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두 뿔이 ‘일곱 중에 속한 여덟째’가 되는 과도기에, 은혜의 시간이 끝나기 직전에 드러난다.

왕이여, 왕께서는 침상에서 장차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마음에 생각하셨고,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는 이가 장차 될 일을 왕께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나에 관하여 말하자면, 이 비밀이 내게 나타난 것은 내가 다른 모든 살아 있는 자들보다 더 지혜가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 드릴 자들을 위하여, 또 왕이 마음의 생각을 알게 하려 하심입니다. 다니엘 2:29, 30.

다니엘은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는 이가 장차 일어날 일을 내게 알게 하신다”, “후일에”라고 말함으로써, 느부갓네살의 꿈이 마지막 때에 관한 것임을 두 번째 증언으로 확증한다. 이어 다니엘은 그 비밀이 자기에게 주어진 것도, 자신이 다른 어떤 사람보다 뛰어난 지혜를 가졌기 때문도 아니라, “해석을 알릴 자들을 위하여” 그 “비밀”이 느부갓네살에게 주어진 것임을 밝힌다. 그 “비밀”은 마지막 때 바벨론의 영적 왕에게 그 꿈의 “해석”을 제시할 자들을 위해 주어진 것이다. 그 비밀은 특히 14만 4천을 위해

주어졌으니, 그 “비밀”은 마지막 때 바벨론의 최후의 몰락을 선포하는 자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다음 다니엘은 어둠 속에 감추어져 있었고 생사를 가르는 시험을 불러일으킨 그 형상에 관한 꿈을 드러낸다.

왕이여, 왕께서 보셨는데, 보라, 한 큰 신상이 있었습니다. 이 큰 신상은 광채가 뛰어나 왕 앞에 섰고, 그 모양은 두려웠나이다. 그 신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며, 배와 넓적다리는 놋이고, 종아리는 철이며, 발은 얼마는 철이고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왕께서 보시는데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고 뜨인 한 돌이 나와,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산산이 부서뜨렸나이다. 그때에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함께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의 겨와 같이 되어 바람에 날려 흔적도 찾을 수 없었고, 그 신상을 친 돌은 큰 산이 되어 온 땅에 가득하였나이다. 이것이 그 꿈이니, 우리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다니엘 2:31-36.

느부갓네살의 꿈은 그의 시대부터 말세에 이르기까지의 성경 예언 속 왕국들을 드러냈다. 그 말세에는, 느부갓네살에게 한 다니엘의 설명에서와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고 뜨인 돌로도 상징되는 십사만 사천이 신상으로 나타난 땅의 왕국들을 멸하고, 그 돌은 온 땅을 가득 채우는 산이 된다. 이 꿈은 십사만 사천에게 마지막 예언의 비밀이 계시되는 예언적 전환점인 말세에 관한 것이었다.

참된 개신교의 뿌를 상징하는 기치로서, 그들은 죽어 가는 세상에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한다. 그 기별은 미국에서 일요일법령이 제정되어 짐승의 표가 강요될 때 큰 외침으로 발전한다. 그 법령 이전에, 말세에 다니엘로 예표된 자들은 짐승의 우상 시험에 직면하게 된다. 그 시험은 시각적 시험이며, 일요일법령을 초래하는 운동들이 다니엘로 예표된 자들에게 보여져야 한다. 그들은 어둠 속에 감추어진 그 우상 시험을 볼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론을 선택했는지가 드러나도록 시험을 받는다. 그들의 시험은 개인적인 견비와 고백을 포함한다. 또한 다니엘이 꿈과 이상에 대한 깨달음을 부여받았음을 인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는 그들이 광야에서 외치는 다니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를 거절한다면, 그리스도의 때에 세례 요한의 기별을 거절한 자들과 같기 때문이다.

화이트 자매는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이 서로를 보완한다고 우리에게 알려 주며, 그녀가 사용하는 ‘보완’이라는 말은 완전하게 한다는 뜻이다. 2023년 7월 말, 유다 지파의 사자는 은혜의 시간이 끝나기 직전에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봉인을 떼기 시작하셨다. 그렇게 하시는 가운데, 이전에는 올바르게 이해되었으나 이제는 말세의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하는 성경적 진리들을 밝혀 주셨다.

그 진리들 가운데 하나는 요한계시록 11장의 두 증인이다. 또 하나는 요한계시록 10장의 “일곱 우렛소리”가 완전히 성취된 역사이다. 그는 2020년 7월 18일의 실망을 말해 주는 거룩한 개혁선들에서 진리들을 이끌어냈다. 그는 각 거룩한 개혁선에 있는 네 가지 이정표를 사용하여, 첫째 기별이 권능을 받는 때부터 심판에 이르기까지의 역사를, 이제까지 결코 인식되지 않았던 방식으로 보여 주었다. 다니엘서 2장은 이러한 개념들 가운데 많은 것을 완성에 이르게 하지만, 알파와 오메가로 규정된 방법론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이들에게는 이 심오한 진리들이 어둠 속에 감추어져 있다.

다니엘서 2장에 대한 이 연구를 마무리하면서, 다니엘서 2장이 완성시키는 몇 가지 진리와 이정표들을 요약하고 서로 연결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밤의 환상 속에서

다니엘에게 계시된 그 비밀이 바로 이 진리들을 나타낸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다음 글에서 요약과 결론을 제시하겠습니다.

주께서는 사람들이 그들의 오류와 배도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을 만나시기 위하여 당신이 정하신 방편들을 가지고 계신다. 그분의 사자들은 그들을 잠에서 깨어나게 하고 생명의 귀한 말씀인 성경을 그들이 이해하도록 열어 주기 위하여, 분명한 증언을 전하도록 보내심을 받는다. 이들은 단지 설교자에 그쳐서는 안 되고, 닥쳐오는 위험을 알아보고 백성을 경고하는 사역자요 빛의 전달자요 신실한 파수꾼이 되어야 한다. 그들은 간절한 열심과 사려 깊은 지혜와 개인적인 노력에서—요컨대 그들의 모든 사역에서—그리스도를 닮아야 한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산 연합을 가지고, 구약과 신약의 예언들과 실천적인 교훈에 매우 익숙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의 보화 창고에서 새것과 옛것을 가져올 수 있어야 한다. 증언, 제5권, 251쪽.